

제4과... 금도끼와 은도끼

● 전래동화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못가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에 ‘푹땡’ 빠뜨리고 말았어요.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연못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연못물이 흔들리더니 수염이 하얀 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번에는 번쩍이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신령님은 다시 물 속에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쇠도끼를 들고 나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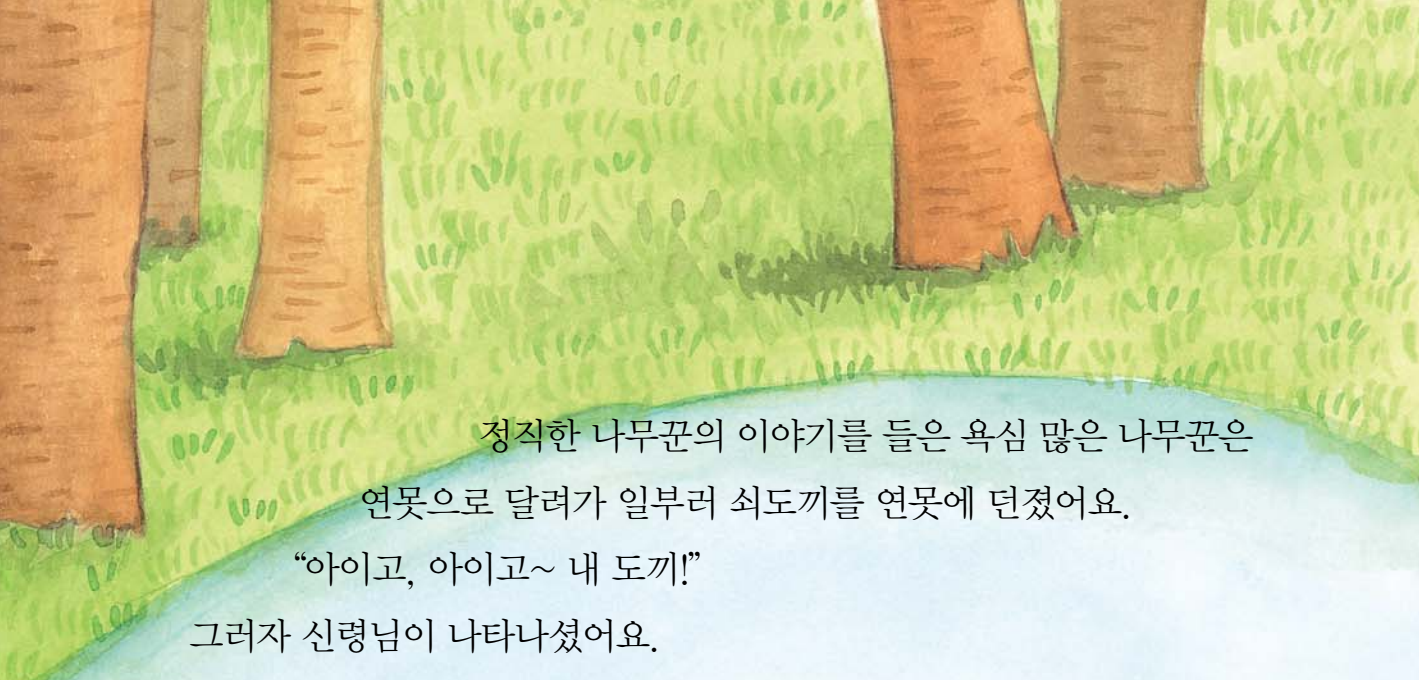
“이것이 네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 것이옵니다.”

“하하하~. 너는 참으로 정직하구나.

내가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를 다 줄 것이니라.”

나무꾼은 산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A forest scene with a stream. In the background, there are several brown tree trunks and green grass. The stream flows from the top right towards the bottom left.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연못으로 달려가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에 던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그러자 신령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령님은 금도끼, 은도끼를 들고 나와 물으셨어요.

“이것이 네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것 모두 다 제 것이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거짓말을 했어요.

“네, 이놈. 거짓말을 하다니!”

신령님은 화가 나서 연못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욕심 많은 나무꾼은 신령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흑흑~. 하나뿐인 쇠도끼인데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